

**한국통신, 항공위성통신
시범서비스 개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곳에나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위성 통신시대가 열린다.

한국통신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충남 금산 위성지구국에 항공위성통신지구국을 12월 8일 개통, 비행중인 여객기안에서 지상의 집이나 사무실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동 사는 총 55억원을 투입, 지난해 5월 항공위성통신 지구국을 준공했으며 그동안 국제이동위성통신기 구인 인 마 세트 (INMARSAT)의 국제 공인시험을 거쳤다. 한국통신은 금산 항공위성통신지구국 개통과 함께 올 연말까지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 여객기등 2대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뒤 올초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 대한항공을 비롯해 아시아나, 외국 항공사의 여객기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마세트에서 운용하는 항공위성통신서비스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적도상공의 지구 정지궤도에 위치한 통신위성 4대를

통해 운항중인 항공기와 지상간의 전화, 팩스, 데이터전송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단파 무선통신과 달리 날씨나 전리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디지털방식을 채택, 고품질의 통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탑승객은 물론 조종사나 승무원들이 관제센터나 지상운항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운항통신도 제공해 긴급상황 발생시 조난통신 역할도 할 수 있다.

항공위성통신서비스 요금은 승객통화료의 경우 분당 약 6천원, 승무원들의 운항통화료는 분당 5천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이용대금은 한국통신의 국제통화용 신용카드와 일반은행계 신용카드를 사용, 후불로 지불할 수 있다.

**대한항공, 탑승권 없이도
탑승가능**

대한항공은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예매로 별도의 항공권없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무항공권 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무항공권서비스는 고객이 전화로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항공사측에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고

항공운임 지불을 요청하면 공항에서는 신분증만 확인한 뒤 탑승권을 교부받아 곧바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고객서비스이다.

동 사는 전국 각 예약부서와 직판매표소를 통해 무항공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올초부터는 국내선항공권을 취급하는 여행사와 PC통신을 통해서도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등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도 무항공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인발권서비스를 내년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사는 무인발권서비스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항공권 예약번호를 입력한 후 발행된 전표를 공항에서 제시하면 곧바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서울-심양, 서울-대련,
황금노선 부상**

작년말 한국과 중국간에 정기항공편 운항이 개시된 이래 서울-심양, 서울-대련간이 황금노선으로 부상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심양발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에따라 이들 2개 노선을 운항하는 중국 북방항공

은 정기항로 개설이후 지난달 말까지 거의 1억원에 달하는 순익을 올렸다고 전했다. 북방항공은 설립된지 5년밖에 되지 않는 데도 운수총량면에서 국제항공, 동방항공, 남방항공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지표도 중국 민간항공사 중에서 앞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북방항공이 이같은 실력에다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많은 항공사들과의 치열한 경쟁끝에 이들 두 황금노선 운항권을 따냈으며 운항전부터 지상근무요원들과 기내 근무요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집중 강화훈련을 시켰다고 말했다.

러시아, 여객기 사고 잇달아

승객 88명과 승무원 8명을 태운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항공사 소속 TU-154 국내선 여객기가 지난 12월 6일 새벽(현지시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지점에서 불길기 목격됐으며 생존자를 찾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정부의 재난대책부 대변인이 밝혔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 출발, 하바로프스크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이 여객기는 이날 새벽 착륙 예정시간을 25분 앞두고 레이다에서 사라졌다.

한편 이보다 하루 전인 5일에는 TU-134 여객기 한 대가 아제르바이잔의 나히체반을 이륙한 직후 엔진고장으로 추락, 51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으며 조종사 1명은 실종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또 러시아 북부 아르한겔스크에서도 5일 승객, 승무원 등 14명을 태운 안토노프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11명이 부상했다.

대만 U-랜드항공, "1센트 항공표" 화제

지난 2월 11일 첫 취항한 대만의 U-랜드 항공이 세계에서 제일 싼 1센트짜리 항공표로 고객들을 모시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대북-고웅노선에 매일 첫 운항 항공기를 이용하는 탑승객에게는 항공료를 1센트만 받겠다는 것이다. 비행시간 40분 거리에 정상가격 미화 50달러인 이 노선의 항공료에 대한 이같은 파격적 할인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항공사는 할인요금에 적용되는 첫 출발 시간이 오전 6시 55분으로 너무 일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했으나 이번주 월

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좌석 예약이 끝났다.

이에 대해 민간항공협회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U-랜드 항공은 1센트 항공표가 항공표가 정식 항공표가 아니라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운임 무료'라는 도장을 찍는 대응을 했다. 이 항공사 대변인은 또 "1센트의 부과는 우리 항공사의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크라이나 항공협정 체결합의

한·우크라이나 양국이 정기항공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이 항공협정은 향후 정기노선이 개설될 경우 상대국 지정항공사에 대해 무착륙 영공통과권과 직항노선의 화물 및 여객수송권을 부여하며 정기노선 운항에 있어 2개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라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간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지정항공사의 운항시 부품, 연료, 운할유등 항공장비 및 기타 적재품에 대해서로 면세해 주기로 하며 상대 국내에서 의지사설치를 허용하는 등 영업활동을 보장한다.